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본 어린이 성경 번역

손삼권*

1. 서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인(萬人)을 위한 만인의 책”인데, 오늘의 기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린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외국에서는 이야기체 성경, 발췌 성경, 어린이 성경 완역본 등이 발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어린이 성경」이라는 표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에서 나왔고¹⁾,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²⁾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출판사에서 외국의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차원에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읽고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들의 경험세계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따른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용만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이란 성경의 내용과 어휘의 문제, 그리고 신학적 난제, 비현대적 표현들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린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제

* 전주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기독교사상 주간.

1) 전영택, 이봉구, 최효섭, 유영희, 「어린이 성경」(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2) 정종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동양출판사, 1968);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기독교문사, 1990), 85-86.

공하지 않고 성경의 일부만 발췌³⁾하거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 중심⁴⁾으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둘째, 어린이들도 인격적이며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그대로 제시하자는 의견이다. 즉 성인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도 성인용 성경을 읽으므로 성경의 의미를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 기존 성인들의 성경 전체⁵⁾ 그대로 제시하고, 여기에 그림과 도움말, 단어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 성경을 이야기체로 재구성하거나 성경 일부를 발췌하는 경우에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공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체 성경이나 발췌 성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제공하되, 가능한 어린이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존 어린이 성경이 이야기체나 발췌 성경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며,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글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적 입장에서 성경 읽기를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추구한다. 왜냐하

3) Mary Batchelor,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Lion Publishing, 1985); 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Amazing Book*(Internation Bible Society, 1991).

4) The Daughters of St. Paul, *The Bible for Children*(St. Paul Editions, 1985); *Stories of Bible*(American Bible Society, 1987); Marian Schooland,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Eerdmans Pub. co., 1975); Rolf E. Aaseng, *Augsburg Story Bible*(Augsburg, 1992); Gibert Beers & Ronald A. *The Big B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 Childres's Bible: Words of Wisdom*(Hong Kong Bible Society, 1993); Walter Wangerin Jr., *The Book of God for Children*(Zondervan Pub. House, 1997); 전영택 외, 「어린이 성경」(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정종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경」(동양출판사, 1968).

5) John D. Clare, *The Bible Alive*(Zondervan Pub. ouse, 1993).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해설, 국가 상황, 연대표, 색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외 어린이 성경의 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 성경을 간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Walter Wangerin Jr., *The Bible for Children*(Checkerboard Press, 1986);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Sweet, 1986); *The Children's Living Bible*(Tyndale House Pub. 1987); *Psalty's Kids Bible*(N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Larry & Sue, *The Teen Study Bible*(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hildrens's Illustrated Edition*(American Bible Society, 1995).

면 성경의 목적은 기독교 공동체와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읽기 위한 것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언어적이며 심리적인 한계를 고찰한다. 물론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개발을 위하여 언어학적이거나 아동심리학에 근거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고려해야 한다.⁶⁾ 그러나 이 글에서 신학적 준거나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목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의 제한점을 찾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번역의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어린이의 성경 읽기

2.1. 성경 읽기의 의미

성경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점 외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마태 24:35, 누가 21:33)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기독교적 삶과 신앙의 모델을 가르쳐왔다. 즉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기준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을 가르쳐야 할 가치 있는 표준과 규범이 된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읽고 배워야 할 책이다. 특히 성경은 읽혀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때에 독자와 저자,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예배나 성경공부 등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라 할 수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만국의 만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역 성경의 서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즉 표준새번역 성경에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고 하였고,⁷⁾ Bible for Today's Family, New Testament의 서

6) Abraham Kuyper, "The Twofold Development of Science,"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Grand Rapids: Eerdmans, 1954), 48-51을 참고하라. 그리고 Cornelius Van Til,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36-37. 반틸은 “우주 일반에 관한 사실들은 성경에 제시된 진리 체계의 조명 아래 탐구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미 소유한 다른 진리 체계에 따라 연구될 수도 있다. ...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과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7)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성경」(대한성서공회, 1993), 머리말.

문에서 KJV(King James Version)의 번역자들도 독자들이 명백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성서는 “읽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읽기 쉬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CEV(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머리말에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놓았으니 마음껏 읽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껴 보라.”⁸⁾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성경 번역은 읽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 번역이 ‘읽기 쉬운’ 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기억할 수 돕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 보급된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 출판사의 보급을 제외하더라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매년 출간하는 성경이 100만권이 넘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2,197개 언어(1997년 말 통계)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21세기에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4-5,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추정한다.⁹⁾ 이렇게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어린이 성경 번역은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2. 성경 읽기와 기독교교육의 관계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세속의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언어적 행위는 추상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이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¹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8) *Bible for Today's Family, New Testament*(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1), *Translating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참고하라.

9)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대한기독교서회, 1999), 23-24.

10) 기독교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라는 언어적 매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James Barr, *Holy Scripture: Canon, Authority, Criticism*(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12를 참고하라. 그러나 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의사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창세 17:1, 출애 17:14; 24:12; 31:18; 32:15-16; 34:1, 신명 28:58; 29:20; 30:10; 여호 1:8; 8:31; 이사 30:8, 그리고 예언서와 율법서; 고후 13:10, 살전 2:13, 딤후 3:14-15, 요일 1:4, 2:12-14, 유다 3절, 그리고 복음서 참조). 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Gillain Brown and George Yule, *Discourse Analysis*(CT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를 참고하라.

의 매개체인 언어는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하며, 말씀으로 계시된다는 명제를 신뢰하는 것이다.¹¹⁾

성경은 언어로 기록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언어적'이다.¹²⁾ 특히 기독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언어적 행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즉 '언어와 행위'는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성서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위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성서의 언어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행위는 말씀의 실천이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응답과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이 종교적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구조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교육과 신앙의 과제로 삼았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6:4-5의 쉘마(Shema)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성경이 신앙 교육적 의미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암시한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는 명령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이는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다. 절기에는 일정한 성경(five scrolls)을 읽도록 제시되어 있었고,¹³⁾ 그들의 성경 읽기는 신앙과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다(신명 6:4-9).

성경은 경전으로 교육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즉 처음에는 토라(모세오경)¹⁴⁾를 읽게 했고, 다음에는 예언자와 그들의 작품들, 나중에는 미쉬나(Mishna, 구전으로 전수되다가 나중에 탈무드 형태로 기록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는 회당에서 경외전(Apocrypha), 모조비문(Pseudepigrapha)을 배우게 하였다.¹⁵⁾ 여기서 말하는

11) Carl F. H. Henry, "The Concerns and Consideration of Carl F. H. Henry," *Christianity Today*, 13(March 1981), 21.

12) 박봉량, 「신학의 해방」(대한기독교 출판사, 1994), 237f.

13) James L. Crenshaw, *Story and Faith*(London: Collier Macmillan Pub., 1986), 456: 히브리 절기에 읽는 성경은 다음과 같다. 즉 Feast of Weeks에는 룻기, 유월절(Passover)에는 아가서를, 장막절과 초막절(Tabernacles, Booths)에는 전도서를, 아브(9th of Ab)에는 예레미야 얘가를, 부림절(Purim)에는 에스더를 읽었다.

14)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 Macmillan, 1944), 41-42: 토라는 교훈, 즉 가르쳐진 것, 교육을 뜻한다. 토라는 신앙 양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종들을 통해 제공된 신앙 교육을 의미한 듯하다. 간혹 예언적 교훈의 부분, 축제일 또는 안식일 법, 성문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체화를 말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5)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Chicago: Moody Press, 1983), 21.

교육의 과정이라는 말은,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며,¹⁶⁾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창조를 통해 계시하신 것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과 어린이 개개인에게 의미 깊은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일종의 성경의 ‘언어적 교육’¹⁷⁾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잠재적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 교육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대화에 참여하므로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간의 상호작용(intertextualiation)의 과정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이미 읽은 본문들의 교차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경 저자의 문화적·종교적·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에 자신들의 형태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그 의미와 개념을 재조정하고, 다시 말하거나 쓰는 행위를 통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것을 서인석 교수는 “새로운 것의 생산성”이라고 하면서 성서 읽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를,

“쌍둥이 본문을 발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문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 나의 오른손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책을 쓰게 한다는 것이다. 읽는 것은 행간(行間)에, 여백(餘白)에, 읽고 있는 본문의 텅 빈 공간과 그 흰 종이 위에 독자인 나에게 고유한 본문을 새롭게 짜서 쓰게 한다. ... 사실 독서의 작업은 덧붙이는 일과 비슷하지 않는가.”¹⁸⁾

민영진 부총무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말씀은 독자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며, 새로운 희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한다.”¹⁹⁾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성서봉독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16)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성바오로 출판사, 1984), 92.

17) Jack Fennema, 「기독교 아동교육」(엠마오, 1987), 108-109.

18) *Ibid.*, 70-71.

19)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 25.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2.3. 성경 읽기의 목표

일반적으로 “읽기를 하는 주요 목적은 그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²¹⁾이다.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 것이 강조되며, 나아가 “단어 발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도량을 넓히고, 인생의 미래에 만나게 될 삶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창고에 가치 있는 내용을 쌓아 두는 것이다”²²⁾. 물론 이러한 읽기의 교육적 개념은 ‘지식과 기억’이라고 생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읽기 교육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기독교교육에서도 성경 읽기는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지식과 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 서적이거나 성경 읽기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즉, 첫째는 지식 획득이며, 둘째는 획득된 지식의 암기하는 것이며, 셋째는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낭송)가 그것이다. 이중에서 첫 번째 것은 목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읽는 것, 즉 낭송이 필요하다.²³⁾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글의 의미 파악, 기계적 암기, 그리고 낭송이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읽기의 목표>

20)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92.

21) Staniford, *The Art of Reading*(MA: West & Richardson, 1815), 9.

22) L. W. Leonard, *The Literary and Scientific Class Books*(NH: John Prentiss, 1827), v.

23) L. Cobb, “Third Juvenile Reader,” *Cobb's Juvenile Reader*, No. 3(NY: Collins & Hannay, 1831), xiii.; Staniford, *The Art of Reading*, 9-10 참고.

1. 글의 의미 파악을 위한 철자, 발음법 이해	해독, 즉 철자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2. 기계적 암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훈련, 묵독을 통해 암기할 수 있다.
3. 낭송	한번 획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낭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읽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문어(文語)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어 시작 이전에 구어가 발달해야만 한다고 보지만,²⁴⁾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구어발달이 문어발달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선행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구어와 문어는 동시에 발달하며, 상호 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⁵⁾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특히 구어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중재'²⁶⁾가 풍부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

24) 일반적으로 구어가 발달되어야 문어가 발달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 Mattignly, I. Q. *Reading, Linguistic awareness, and Language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Reading Research Seminar on Linguistic Awareness and Learning to Read*(Victoria, British Columbia, 1979).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구어발달이 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행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hri, L. "Word Consciousness in Readers and Pre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1975), 204-212; Mason, J. M.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 Year Old Children's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search Reading Quarterly*, 15(2), 1980), 203-227.

25) 구어도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 나타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L. Ehri, "Word Consciousness in Readers and Pre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1975), 204-212; J. M. Mason,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 Year Old Children's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search Reading Quarterly*, 15(2), 1980), 203-227.; J. Taylor, "Making Sense: The Basic Skill in Reading," *Language Arts*, 54(6), 1977, 668-672.); 그리고 어린이를 대화의 상대로 대우하거나 능력 있는 대화 상대자로 인정할 때 언어발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L Robbins, "Mastering Language: A Process of give and take," *Bostonia*, July, 1984, 26-28.; Wells, G., *The Meaning Makers: Children Learning Language and using Language to Learn*(Portsmouth, NH: Heinemann, 1985)을 참고하라.

26) 이에 대한 논의는 G. L. Bissex, *GYNS AT WRK: A Child Learns to Read and Writ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D. Doake, *Preschool Book Handling Knowledge or Book Experience and Emergent Read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Atlanta, GA, 1979); D. Durkin, *Children who Read Early*(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66)를 참고하라.

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읽기의 주된 방법은 암기 형태이며, 암기는 종교적 책이나 학술적인 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기도문이나 찬송가, 성경에서 발췌한 글을 암기하게 했고 학자들은 한정된 수의 이들 책의 내용을 거의 암기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의 가독적 자원(可讀的 資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의 장점과 목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읽기는 성경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기독교의 문화가 대부분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후대에 읽혀지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와 비유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성경 읽기는 기독교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수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흘러 내려온 문화를 전수하게 되고, 유지시키며, 발전하게 한다.

둘째, 성경 읽기는 성경 언어와 친근성을 높인다. 성경 언어에 친근해지면 성경 읽기의 정확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친근감을 꾀할 수 있다. 성경 읽기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어휘력과 독해력이다. 어휘력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언어학적 의미 이해'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가 오늘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읽는 성경에서 잘 모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내용-한자어, 종교적 언어, 추상적 개념, 은유적 개념, 문화적 개념-일 경우에는 성서 읽기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²⁷⁾ 따라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어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성경 언어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용어와 어휘와 지식을 습득은 기독교적 사고력 증진과 양육을 기르는 한 과정이 된다. 어린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주어진 글에 나타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적 언어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돕고, 나아가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또한 그 속에 들어 있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²⁸⁾ 빈츠와 마가르트(M. V. Zintz & Z. R. Maggart)는 읽기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지각적, 언어적, 지적 과정'이라고 하였다.²⁹⁾ 따라서 성경 읽기는 신앙 형성과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7) 강운호, 「언어-그 본질과 체계」(배영사, 1981), 151-152 참고; 강운호는 "독자가 읽을거리의 내용에 관해서 이미 친숙하고, 직접적인 읽기를 통해서 지각하는 문체점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28)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0. 참고.

셋째, 성경 읽기는 그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어린이들이 성경과 가까워질수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글의 구성을 이해하게 되고,³⁰⁾ 같은 개념을 계속 터득하게 되고,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를 체득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매체와 함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자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과 사고 형성과 함께, 그 속에 나오는 문화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책읽기는 총체적 언어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 성서 읽기는 오늘의 문화와 성서의 문화간의 격차를 줄이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적 삶을 돕는다.

넷째, 성경 읽기는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타자에게 '다시 말하기'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기'는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경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종교 교육적으로 어린이들이 터득한 언어의 개념을 인지하고 정리하도록 도우며, 또한 타자를 향한 고백과 전파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며,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와 만남이 일어나고,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되며, 나아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의 과정이며, 성경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서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육 행위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음으로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와 만남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¹⁾

3. 어린이의 성경 읽기의 제한점

29) Miles V. Zintz & Zelda R. Maggart, *Corrective Reading*(IA: Wm. C. Brown Publishers, 1986), 7: 그는 읽기는 사회적 협동, 자기 중심과 타인 의식의 심리적 균형, 생리적인 집중력, 글의 구조에 대한 지각력, 언어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단어에 대한 지식, 기억, 비판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0)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참고.

31) Thomas H. Groom, *Sharing Faith*(New York: HarperCollins, 1991).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안고 있는 성경 자체가 안고있는 성경언어의 난해성, 발달심리학적인 한계, 경험적 언어의 미숙함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제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성경 언어의 난해성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교회 전통과 신학적 제약 때문이다. 독자는 약 2천 년에 걸친 ‘교회의 전승과 신학적 성찰’에 근거하여 읽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독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 성서 말씀을 이해한다. 셋째, 성서 기자와 독자의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서 이해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 번역자의 현대적 해석에 의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래의 목표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³²⁾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성경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17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³³⁾ 성경 본문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1-18(개역성경)을 제시하고, 그 의미와 단어를 설명하라고 하였다. 이 제시에서 어린이들은 대체로 많은 단어와 문장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했다. 이 조사는 성경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며, 표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50% 이상(86명)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장절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1:1	태초(太初), 천지(天地)	-
1:2	혼돈, 공허, 흑암, 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어둠, 물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1:3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32)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Maryknoll, N. Y.: Oribis Books, 1994), 54-60.

33) 마산교회 68명, 영생교회 51명, 천안중앙교회 73명(합 172명)

1:4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1:5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셨다 -
1:6	궁창(穹蒼)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창공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1:7	궁창 아래(위)의 물	창공 아래(위)에 있는 물
1:9	물이 드러나라	물은 드러나거라
1:11	과목(果木)	열매
1:14	광명, 주야, 징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빛나는 것, 낮과 밤, 계절,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
1:16	주관(主管)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고
1:18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빛과 어둠을 가르게
1:21	번성	-
1:22	복, 생육(生育), 번성	-
1:24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내어라
1:26	우리의 모양대로	-
1:27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 -
1:29	지면의, 식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은 땅 위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1:30	식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먹을거리로 준다

<요한복음 1:1- 18>

장절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1:1	태초(太初)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1:5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1:8	증거	증언
1:9	참빛	참 빛
1:10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2	영접, 권세	맞아들인, 특권
1:13	혈통(血統), 육정(肉情)	-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광, 은혜, 충만 충만,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
1:16	율법	-
1:17	독생	-

위의 예는 성경의 일부이지만, 어린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자어와 종교적 용어 등이 많이 나온다. 또한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단어는 현대적 어휘라 하더라도 비유나 상징적 표현, 심지어 추상적 개념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자어(창공, 형상, 인자, 반석, 서원, 경솔히, 증거, 수난 등), 종교적 언어(안식일, 랍비, 선지자, 번제, 구원, 속죄, 성령, 은혜, 영생, 은혜의 해,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등), 추상적 개념(천국, 천부, 사랑, 용서, 하늘, 등), 은유적 개념(겨자씨, 소금, 빛, 길 등), 문화적 개념(달란트, 밧셋기, 어부 등) 등이다. 둘째는 성경에 말하는 '단어 자체의 실생활의 의미 이해' 등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어의 개념, 문맥상의 의미, 기록 당시의 시대상과 그 관계를 잘 모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거나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골드만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사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사고 범위와 한계 안에서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³⁴⁾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성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어린이들에게는 절대로 읽힐 수 없는 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어른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지나치게 축소시키면서 본의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2. 발달심리학적 한계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발달단계의 한계 안에서 인지 영역 안에서 독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출애 3:1-6)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종교적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 4-5세의 아동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며,³⁵⁾ 6-8세는 인간적 이해, 9세부터는 하나님의 언어적 이해, 11세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서의 종교적 사고와 언어는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적 발달심리학 이론은 어린이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34)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A Basis for Developmental Religious Education*(New York: The Seabury, 1968), 25ff.

35)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8), 107.; 어린이들은 12세 이상이 지나야만 반 물질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일 이해하며, 상징적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

언어 기술 습득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요소인 소속감의 발생을 유발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아동의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³⁶⁾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서 그들은 사회화된(socialized) 언어보다는 ‘자기 중심적’(ego-centric) 언어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에 제한이 많다. 즉 그들은 사고의 사실적인 결과만을 다루며, 서로 이야기할 때 순수한 논의나 추상적인 사고, 인과적이며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를 꺼려한다.³⁷⁾ 사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물을 보는 특정 관점을 무시하며, 논쟁에 있어서 조차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대신에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³⁸⁾ 특히 그들은 ‘비지향적 또는 자폐적 사고’(undirected or autistic thought)를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떠나간다.³⁹⁾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며 자폐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적인 사고의 원인을 골드만(R. Goldman)은 ‘지적 미성숙과 언어적 제한’이라고 역으로 말한다. 즉 지적 미성숙과 언어적 제한이 자기 중심의 본질(the egocentric nature of childish)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사고한다고 하였다.⁴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세 살 무렵부터 어휘를 사용하게 되며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에 유발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라는 질문부터 왜, 어디서, 무엇을, 누가? 라는 식으로 묻기 시작한다. 이러한 물음은 그들의 인지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어른들을 모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⁴¹⁾

그들의 개념 획득은 성경 내용 이해와도 직결된다. 이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미와 개념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인지의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경험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사용한다는 보고하였다. 아동이 종교적인 어휘를 곧 획득하지

36)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어린이 성서교수법」, 손삼권 역(대한 기독교출판사, 1995), 53.

37) Jean Piaget,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이순형 역(중앙적성출판사, 1988), 104-112.

38) *Ibid.*, 42-43.

39) *Ibid.*, 41-46.

40) Ronald Goldman, x-, 11.

41)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62-63.

만, 그들 중 대부분이 초기에는 종교적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⁴²⁾ 물론 그들이 특별한 말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바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골드만은 여기서 종교 교육의 위험이 파생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종교 교육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용하는 2차적인 언어(secondary language)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비, 은유, 직유, 상징 등의 근거가 되는 경험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어린이들은 대체로 준종교적 사고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발달심리적 혹은 종교적사고 단계의 제한점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적 한계 안에서 이해할 우려가 많으며, 나아가 그들의 사고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경험적 언어의 미숙함

기독교교육에서 언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성경의 언어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⁴⁴⁾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개념을 획득하고, 기독교적 삶을 형성시키도록 돕는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행위는 그들의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들을 언어라는 매개로 진행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삶의 경험 안에서 읽고,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언어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획득하고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을 구성하고 경험을 되새기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42)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A Basis for Developmental Religious Education*, 31-32.

43) 예를 들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문장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양을 위한 목자의 돌보심에 대한 유비로써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전달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목자의 눈으로 양의 도움과 가치, 양을 위한 희생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써 빛의 이미지와 다른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빛은 두려움을 쫓고, 숨겨진 곳을 찾아내고, 불모를 태우는 것임을 전달해야 한다.

44)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2), 22. 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위한 훈련이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언어를 통하여 비유, 종교적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의식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전달하고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읽고, 반대로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나아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을 우리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신앙을 타자에게 고백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축적된 경험(accumulated experience)에 의해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성경 이해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성경 혹은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는 특별하고 아직 모호한 부분과 장애가 바로 독자의 삶이라는 것이다. 성서 독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어떤 특정한 진술을 부여하는 것은 성별, 인종, 국적, 지위, 수준, 나이, 가정 환경, 관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⁴⁵⁾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 비유, 거룩한 이야기, 의식 등도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언어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성경 읽기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직결되며,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므로 그 속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체득해야만 바르게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성경 읽기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골드만은,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근거로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를 조사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⁴⁷⁾ 6세 된 어린이들은 ‘먹는 것’(떡에 마법이 걸려있다)과 관련하여 대답을 하였고, 8-10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의 순종을 생각했고, 12세 이후에는 ‘영적인 차원’(선과 악의 대항)을 간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8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적절성과 적합성이 없으며, 수년간 잘못된 개념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⁴⁸⁾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세계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인지하고 있는 언어는 그들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

45)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 52.

46)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31.

47)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166-170.

48) *Ibid.* 169-171.

따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가 무엇을 알며 그 자신이 무엇을 만나는가'라는 끊임없는 교차관계(constant cross relations)를 찾는 일이며, 이 작업 없이는 어떤 종교교육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린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려면 어린이들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언어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3.4. 어린이의 성경 이해 영역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따르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발달심리학적으로 성경의 언어를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증적으로 이해하며, 성인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적 삶의 경험의 미숙함이 있으며, 그리고 성경언어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인들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들이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한 어린이 예배에서의 설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교육의 내용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읽는 일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성경의 번역자들은 어린이 성경을 이야기체로 각색하여 출판하거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어린이 성경 개발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드만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제하고,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 5-7세)⁴⁹⁾

이 단계의 아동에게 행할 수 있는 종교 교육의 범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성서나 기독교의 지식을 제공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관계와 영향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단계의 어린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연구하도록 자극을 주며 성취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⁰⁾ 그들은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부모의 모습에서 종교적 언어를 찾고 사용한다. 이들을 위한 교수 내용은 거의 "생활 중심"으로

49) 이 단계는 "전종교적 사고단계"(pre-religious stage)라 할 수 있다. 지각 기능을 가지고 대상을 다룬다. 어어는 직접 경험을 표현한다. 뼈아제는 이 단계를 「감각운동 단계」라 구분한다.

50)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90.

전개되고, 중심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죽음과 생명,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예배 참여, 아동의 욕구, 즉 안전에 대한 욕구, 환상에 대한 욕구, 재미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 유년기(Middle Childhood, 7-11세)⁵¹⁾

유년기는 신체가 발달하는 단계로써 구체적인 조작으로 사고가 가능하며, 다소 논리적이어서 한 가지 사고와 연관시켜서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은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접근이 강하며, 타인에 의한 충동이나 욕망의 영향이 강하게 일어난다.⁵²⁾ 타인과 권위를 의식하며, 이들의 언어에 의해 행동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들을 위한 성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초기> 가정, 친구, 애완동물, 우리를 돕는 사람, 목자와 양, 손, 다리, 옷, 조반 식사, 시간, 씨앗, 생일 파티 등 생활 내용으로 아동을 만나고 도와주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 양(양치기, 양의 하루, 선한 목자 등).

<후기> 가정과 관련된 내용(예수님의 가정, 유목민, 피난민, 롯의 가정 등), 방학, 노래, 음악, 시, 우유, 불, 선물, 빵, 4계절, 여행, 처음과 나중 등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내용 등

③ 후기 아동기와 전청소년기(Late childhood and pre - adolescent, 11-13)

이 단계의 아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며,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자기 또래를 형성하며, 부모보다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욕이 강하다. 또한 종교적 환상이 사라지고, 의인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단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며, 사고는 구체적이며 항상 사실과 관련시켜서 사고한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성경 주제는 다음과 같다.

<생활 중심 주제> 나 자신, 창조, 빛, 물, 소리, 공기, 법과 질서, 이름, 이야기 등

<종교적 · 성서 중심 주제> 성경의 본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51) 이 단계는 “준종교적 단계”(Sub-religious Stage)라고 볼 수 있다. 뼈아제는 「전조작적 혹은 직관적 사고단계」라고 하였다. 이때는 ‘단초점 사고’로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하는 일반 논리성을 지닌 사고를 한다.

52) Laster D. Crow, Alice Crow, 137.

위에서 제시한 아동의 성경이해 범주는 골드만의 제안이다. 이 제안대로 한다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발췌 성경을 제작할 수 있지만, 골드만이나 종교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연령층에 따른 발췌 성경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전통적으로 종교교육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읽기 교육의 방법은 개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의 성경 읽기는 교회의 예배나 성경공부에서 어린이의 이해나 인지 차원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으며,⁵³⁾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에 대한 소외감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교육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외면되고, 단순히 성경 교재(공과)가 주된 교육자료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책은 읽기의 차원에서 제작되어야 하며,⁵⁴⁾ 어린이 성경도 읽기의 차원에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뉴먼(B. M. Newman)은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7가지 원칙⁵⁵⁾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어린이들의 삶에 맞는 번역을 위한 '수용성'(acceptability),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발췌되는 '선택성'(selectivity)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따르는 번역 원칙 중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을 위한 방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에 맞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들 자신의 문학적 종교적 심미를 추구하지만, 아동들의 정신 수준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책은 어린이들에게 가독성(readability)이 약한 것이 된다.⁵⁶⁾ 왜냐하면 사람들

53) N. B. Henry ed., "Measurement of Understanding,"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8-10.

54) Thomas G. Devine, *Teaching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Boston: Ally and BAcon, 1989), 141-143.

55)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Oct. 1987), 411-418; 뉴먼은 어린이 성경번역의 7가지 원칙을 정확성, 명확성, 수용성, 선택성, 감수성, 경제성, 이미지성을 언급하였다.

은 글 읽기에서 익숙한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편이다.⁵⁷⁾ 아동들은 기초 어휘(sight vocabulary)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주어진 단어를 재빨리 해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의미 획득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비트(Leavitt)는 어린이들에게 이해도 못하는 책을 지겹게 읽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⁵⁸⁾ 이 말은 성인들이 읽는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읽히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책을 읽히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른들의 종교적 사고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아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수준에 맞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이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고려한다면 그들에게 경험을 제한시키는 것이라 하였다.⁵⁹⁾ 또한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동들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공하여야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넓은 언어 분야를 접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⁶⁰⁾ 더욱이 종교 교육의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므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은 일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발췌하는 것보다는 전체 성경 중에서 가능한 어린이의 언어적 종교적 사고차원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성경의 문체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언어를 사용⁶¹⁾하면서도 동시에 유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짧고 단순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각 책의 개요와 목적 등을 진술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어린이 성경

56) J. Leavitt, *Reading Lessons for the Use of the Middle Classes in Common Schools*(MA: John P. Jewett, 1852), iii.

57) S. Willard, *The General Class Book*(MA: A. Phelps and A. Clark, 1828), iv.

58) J. Leavitt, *Reading Lessons for the Use of the Middle Classes in Common Schools*, 6.

59) E. Sargent, *The Standard Fifth Reader of First Class Reader*(MA: J. L. Shorey, 1863).

60) W. Swinton, *Swinton's Third Reader*(NY: Ivison, Blakeman & Taylor, 1882).

61) S. Town, & N. M. Holbrook, *The Progressive Fifth or Elocutionary Reader*(MA: O. Elocutionary, 1856): 오래 전부터 타운은 어린이 교재를 오래 연구하면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의미 있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G. S. Hillard, *Second Class Reader*(MA: Hickling, Swan & Brown, 1867).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성경 각 책의 방향과 의미를 선이해될 수 있도록 개요와 목적을 제시해주는 것은 어린이들의 성경 언어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친숙한 제목으로 정하되 짧고 쉬워야 하며, 어린이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가지고 해야 한다.⁶²⁾

또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해설집 혹은 사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읽기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문자 획득을 위해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어, 지명, 인명, 관습, 특수 단어(종교적·사회적·문화적 용어 등)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해설집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사전의 사용은 문자 해독뿐만 아니라 의미 획득을 촉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담스는 “학생들이 언제나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⁶³⁾고 했다. 특히 어린이 성경 테두리에 여백을 많이 두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여백에 자신이 배우고 찾고 생각한 단어의 의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유도한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일은 읽기의 개념이 완성될 수 있다.⁶⁴⁾ 어린이들이 읽은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어린이들이 그 성경 내용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읽기의 최종 목표이며, 어린이들이 이해한 성경 내용을 글과 말을 통한 재구성, 드라마적 요소를 통한 표현, 예술적 활용을 통한 심미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 체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안에서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성경을 구성하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로 조절하여야 한다.

1)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은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어 수, 음절 수, 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가능하면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가이사는 시이저로, 파시는 페르시아 등으로 사용한다.

3)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단어는 신학적 의미에 견해차가 있

62) J. Ely, *The Child's Instructor*(CT: J. B & L. Baldwin, 1833) 참고.

63) D. Adams, *The Understanding Reader*(MA: Hori Brown, 1821), iii.

64) S. L. Arnold, *Reading*(MA: Silver, Burdett, 1899), 153.

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4)문어체와 구어체 사용, 예수님의 어록중에서 “~해라”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시오”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이외 존칭의 문제 등은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문장의 복잡성에 대한 통제, 단어의 수와 형태에 대한 통제, 서로 다른 단어의 전체 수, 단어 어구의 전체 수, 문장 길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뉴먼은 단순한 문법과 문장, 능동적인 표현, 빈도수가 적은 어휘, 음절이 적은 단어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⁶⁵⁾

다섯째, 어린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의 가독성을 위해서 인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은 표기 내지 인쇄된 것을 눈으로 읽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쇄가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다.

1)성경 본문의 구성: 어린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보다 형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대화문으로 할 것인지 혹은 설명문 형태로 배열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 외에 기도문, 인용구 처리, 연설문, 서신, 이야기(혹은 소설), 설명문, 전기 혹은 자서전, 시, 비유, 산문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단의 수와 분리, 단락 바꾸기, 페이지의 단어 수, 페이지의 문장 수 등을 잘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별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성경 내용이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 형태로 꾸민다고 한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성경 가독성을 위해서 문장 형태를 이야기 형태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⁶⁶⁾

2)교재의 외관: 판형, 활자 크기, 자형, 인쇄상의 기법, 여백, 삽화,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판형과 활자가 크며 여백이 많으며,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쇄상의 기법을 많이 동원하며, 삽화를 많이 넣으며 색상을 많이 고려한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를 위한 삽화, 단어의 의미 인지를 위한 삽화, 성경 각 권이나 문단 혹은 단락의 의미 파악을 위한 삽화, 회상을 위한 삽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⁶⁷⁾ 그리고 성경의 글자가 또렷하고 질

65)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424.

66) R. R. Robinson, *Two Centuries of Change in the Content of School Readers*(T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30)를 참고하라.

67) 과거에는 책에 삽화를 넣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심했다. Hazen은 삽화는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J. Hazen, *The Primary Instructor and Improved Spelling Book*(VT: D. Watson, 1824). 그리고 Webb은 철자법과 설명식

좋은 종이로 인쇄되어야 한다.

5. 결어

이 글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것이다.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번역된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기 힘든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제한점이 많다. 즉 성경 언어의 난해함, 자기 중심적 한계와 경험 언어의 미숙함 등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성경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성경의 부분을 제한했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영역을 축소시켜왔다. 기독교교육에서도 어린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단계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어린이의 성경 읽기와 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들의 성경 이해는 극히 제한적이고 성경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알아야 한다. 참으로 어린이들의 하나님의 소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성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 개발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종교적인 존재'⁶⁸⁾이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이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피조물이고 개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이라는 말은 사고의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의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⁶⁹⁾ 따라서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 세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성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도 방법을 찬성하면서도 그림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어서 해롭다고 했다. J. R. Webb, *Normal Reader*, No. 1(NY: Sheldon, Lamport & Blakeman, 1855). 그러나 McGuffey는 아동의 글에 삽화를 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넣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넣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W. H. McGuffey, *Electric Fourth Reader*(OH: Truman & Smith, 1937).

68) Jack Fennema, 「기독교 아동교육」, 17-21.

69)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45-46.

둘째, 많은 학자들은 어린이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이 영역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다. 인간은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성장하며, 한 가지 영역의 성장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언어 기술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⁷⁰⁾ 어린이들이 언어와 종교적 사고가 미성숙할지라도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성경을 접하고 읽고 들음으로 그들의 종교적 사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성경을 어린이들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어린이가 실생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떤 단어를 읽을 줄 안다고 해도 해로울 것은 없다”⁷¹⁾고 말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일은 성인이 된 후의 신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설명을 곁들이 성경을 만들어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들은 고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물론 고대 사람들이 들었던 세계와 차이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전했고, 그들이 다른 상황에서 말했던 내용인 복음을 번역할 때 그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해석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⁷²⁾ 어린이의 성경은 가능하면 성경 본질의 의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고백적 성경”을 제작하도록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

70) *Ibid.*, 45-46.

71) 어린이의 지능과 언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Bornstein, M. H. & Sigman, M. D, "Continuity in mental development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57 (1986), 251-274를 참고하라.

72) Terrence W. Tilley, *Story Theology*(Collegeville, Mi: The Liturgical Press, 1990), 102.